

# 금호타이어 연내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 ‘쑥쑥’

### 3년 연속 흑자 작년 부채비율 크게 줄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도 꾸준히 올라

금호타이어의 올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졸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이어지면서 5년 만에 워크아웃을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 영업이익이 2012년보다 7.2% 감소한 3483억원, 매출액은 9.1% 감소한 3조69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요 감소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3년 연속 흑자를 이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재무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전년 414%에서 지난해 318.2%로 떨어졌고, 자기자본비율은 19.5%에서 23.9%로 상승하는 등 2011년, 2012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돼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 지난

2011년에는 부채비율이 765%에 이르렀다.

6분기 만에 분기 매출액이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012년 4분기(9042억원) 대비 0.2% 오른 93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3%나 올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각각 -112억원, 589억원(2013년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그룹 안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다.

긍정 지표가 나옴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연내 워크아웃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중이다. 지난해 말 1만1500원이었던 금호타이어 주가는 18일 1만3950원으로 25% 가량 상승했다.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이미 충족시켰다. 신용등급은 2012년 8월 투자적격등급(BBB-)으로 상

향조정됐고, 분사 기준 부채비율도 지난해 3분기 178%로 떨어져 200% 이하 기준을 채웠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금호타이어의 목표주가를 1만6000원으로 제시하며 금호타이어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비율도 올해 28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부채부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까지 금호타이어가 무난히 워크아웃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최근 3개년 경영실적 (2013년 연결기준 : 잠정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39,158	40,706	36,985
영업이익	1,936	3,753	3,483
당기순이익	-268	1,306	1,174
부채비율(%)	765%	414%	318%

(단위: 억원)



**프랑스 요리 맛 보세요** 18일 인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라운지에서 승객들이 프랑스 요리를 맛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까지 인천공항 퍼스트 및 비즈니스클래스 라운지에서 프랑스 달팽이요리, 요크셔 푸딩, 태국 해물볶음밥 등 세계 대표요리를 승객들에게 제공한다. <아시아나 제공>

# 효성그룹 임원 38명 정기인사

### 조봉규 사장 승진

효성그룹이 18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38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명단 18면>

최효성의 조봉규 섬유PG 나일론 폴리에스터원사PU장(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창환 중국 스판덱스 총괄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사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부사장은 중국 스판

덱스 사업을 총괄하면서 효성의 스판덱스 사업이 글로벌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효성의 전유숙 산업자재PG 부장은 상무보로 승진해 공채 출신으로 첫 여성 임원이 됐다. 전 상무보는 그룹 내 경영혁신 업무와 함께 탄소 섬유사업과 타이어보강재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최효성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책임, 전문성에 입각한 승진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불 꺼진 백열전구

### 물가지수 품목서 50년만에 제외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후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빛이었던 백열전구가 생산자물가지수 조사 품목에 들어온 지 50년 만에 빠진다.

한국은행은 올해 생산자물가 산출을 위해 전년보다 24개 늘어난 89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산자물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품목은 백열전구와 금속장식용품(네티아핀, 메달 등) 등 2개다. 공산품 18개, 농림수산물 5개, 광산품 1개가 신규로 추가됐고 전력·가스·수도 부문에서 도시가스를 용도별로 3개로 쪼갰다.

한은은 생산액이 모집단 거래액의 1만분의 1에 못 미치는 상품이나 2000분의 1에 못 미치는 서비스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조사에서 빠지게 된 2개 항목은 생산액이 1665억원에 미달했다.

임수영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백열전구는 생산자물가를 조사하려 해도 이젠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고, 금속장식용품은 거래액이 조사기준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백열전구는 한이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처음 집계한 1965년부터 포함됐던 ‘창립 멤버’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95%가 빛이 아닌 열로 발산할 만큼 전력낭비가 심한 탓에 형광등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밀려 생산액이 줄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외국에서도 백열전구는 퇴출되는 추세다. 미국은 올해부터 60W, 40W 이상 백열전구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중국은 2016년부터 15W 이상 백열전구의 판매를 막는다.

/연합뉴스

# 대형마트·SSM 임대차 등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제보를 받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임대차계약서와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이 문제 됐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반드시 서면합의를 거쳐도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다.

이밖에 SSM에 대한 상품공급 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과 조항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등이 문제 됐고,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에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이 시정대상이 됐다.

**김선남 광남일보 사장**  
LH 비상임이사에 선임

김선남(65) 광남일보 사장 LH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김 사장을 포함해 LH 비상임이사 6명을 지난 14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무등일보 상무이사, 광남일보 부사장·부회장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국 자동차 생산 9년 연속 세계 5위

### 작년 452만대...생산량 비중은 5.1%로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452만대로, 9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생산 자료(해외생산은 현지국가에 포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452만 1000대로 2005년부터 9년째 세계 5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2011년 465만7000대로 정점을 찍은 국내 자동차생산량은 2012년 456만2000대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도 연속으로 줄었다. 한국의 자동차생산이 전세계 생산량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5.2%로 줄어들며 2011년 5.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2년 5.4%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생산 비중은 2003년 5.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기도 하다.

국내 자동차생산의 하향추세와 달리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은 8738만대로 중국과 미국시장의 판매 증가에 따라 2012년보다 2.7% 늘었다. 특히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자동차생산 5대 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5.1%에서 2013년 60.9%로 커지며 몰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해 판매가 늘어남에 전년보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46.91 (+0.55)	525.42 (+3.42)	2.86% (+0.01)	1065.70원 (+5.20)

# 오이슬루션 코스닥 상장 공모 1조 몰려

### 광주기업중 2번째 상장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광주의 중소기업 ㈜오이슬루션의 기업공개(IPO) 일반공모 청약에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18일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지난 17~18일 오이슬루션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청약결과, 전체 공모주식 수 15만5000주에 1억9476만7000원의 청약이 몰려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에 몰린 증거금은 총 9738억원에 이른다.

광주 첨단산단에 본사를 둔 광동

신 부품업체 오이슬루션은 지난 2003년 설립됐으며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우리로공통선에 이어 광주기업으로선 코스닥 상장 2호기업이 된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기업이 일반공모에 나선 것은 전 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인터파크INT와 국내 첫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이들 기업은 상장 이후 주가가 2주 만에 1.5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황칠나라**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D&P황칠365 신상품**      **황칠시크릿 진액**      **기아타이거즈 공식후원상품**

**현역력 이빨다더 종을 순 없는데...**

**용봉점**      **여수점**      **쌍촌점**

■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 여수점    전남 여주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다남(주)**  
전남 광흥읍 상촌리 60-3